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김 두 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교수

김 호 연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홍 재 영***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사 157명과 시각중복장애학생 및 졸업생 부모 15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4.2%에 지나지 않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제공 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용한 평생교육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나 특수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행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 문제, 교육비 문제 등을 꼽았다. 셋째,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 기간은 3개월~6개월, 주당 횟수는 3회, 하루 운영 시간은 3시간, 제공 기관은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희망하는 전문가는 직업재활사,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직업능력향상교육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넷째,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시각장애, 시각중복장애,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

* 이 논문은 2014년 교육부 정책연구 지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제1저자(kdy205@dankook.ac.kr)

*** 교신저자(ds3atp@jj.ac.k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평생학습과 지식경제의 결합으로 OECD, UNESCO, World Bank, EU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학습: 우리 속의 보물」(1996),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1996), 「유럽 평생학습의 해」(1996)와 같은 굵직한 평생학습 정책문건을 발표하면서 평생학습의 담론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Chapman and Aspin, 1997).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초기 평생교육이 1990년대에 화려하게 부활한 데에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국가적,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면서 국제기구와 국가정부들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된 결과이다(Green 2002).

이 시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정책은 문민정부 말기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국민에게 총체적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정책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육성과 직업능력의 개발이라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우선 순위를 점한 시기이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평생교육정책을 평생학습을 통한 공동체 형성보다는 평생학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인적자원개발로 정책 기조를 세우게 된다(양홍권, 2008). 즉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국가 경쟁력, 경제발전을 위해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고, 이는 이미 시장경제에서 혜택을 받고, 개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커다란 혜택을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신미식, 2010). 2007년 평생학습 실태조사(김창환 외,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9.8%로 OECD 국가평균 26%보다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져서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같이 사회적 계층화와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소득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2001년에는 20개로 출발한 사업이 2006년에는 132개, 2007년에는 184개, 2008년에는 190개로 확대되었고, 지원액수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억 원에서, 2008년에는 9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소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두영, 박원희, 2013). 특히 장애인은 물리적, 시간적, 신체적 제약 때문에 복지관이나 인력개발센터, 교육

훈련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변용찬 외, 2001). 2009년 기준으로 전국 379개 평생학습관의 13,23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88개에 불과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2010), 김정재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 졸업 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의 14.0%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장애의 심각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생애단계별 균형 있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특히 성인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계획들이 특수교육 발전 방안들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김두영, 2013), 국내에 평생교육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성인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크고 작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두영, 박원희, 김호연, 2013).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김윤태 외, 2009; 김정재 외, 2009; 박승철 외, 2010; 윤점룡 외, 2010; 강순원 외, 2011; 송소현 외, 2011; 김주영 외, 2013; 김기룡 외, 2014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일련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연구들은 그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부족하나마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연구는 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 특히 발달장애성인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시각중복장애인은 평생교육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해 왔다. 물론 시각중복장애인 중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각중복장애인의 교육적 욕구는 수반하고 있는 장애와 시각장애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독특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Lewis & Russo, 1998)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시각중복장애인의 특성에 기초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이에 이 연구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시각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시각중복장애 학생 및 졸업생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구체적, 통합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셋째,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넷째,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13개의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중 중복장애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시각중복장애학생 및 졸업생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교사용 설문

먼저 전국 13개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발송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68부로 회수율은 84%이다. 이 중 무응답 빈도가 높은 11부를 제외한 157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부모용 설문

다음으로 시각중복장애 학생 또는 졸업생 부모를 대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발송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76부로 회수율은 89%이다. 이 중 무응답 빈도가 높은 18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학생 부모용 118부와 졸업생 부모용 40부를 합해 총 158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1> 설문참여 교사의 일반적 특성

영역	구분	N	%
설립주체	국립	18	11.5
	공립	24	15.3
	사립	115	73.2
성별	남	57	36.3
	여	100	63.7
교육경력	5년 미만	56	35.7
	5년~10년 미만	41	26.1
	11년~15년 미만	23	14.6
	16년~20년 미만	15	9.6
	21년 이상	22	14.0
소속 과정	유치원	9	5.7
	초등학교	43	27.4
	중학교	48	30.6
	고등학교	40	25.5
	전공과	17	10.8
학급형태	학급 담당교사	80	51.0
	교과 담임교사	42	26.8
	중복장애 담당교사	24	15.3
	기타	11	7.0
계		157	100.0

20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2> 설문참여 부모의 일반적 특성

영역	구분	N	%
성별	남	21	13.3
	여	137	86.7
부모의 직업	전문직	31	19.6
	서비스직	13	8.2
	생산직	6	3.8
	주부	85	53.8
	기타	23	14.6
부모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5	3.2
	중학교 졸업	7	4.4
	고등학교 졸업	63	39.9
	대학교 졸업	71	44.9
	대학원 이상	12	7.6
자녀 소속	유치원	8	5.1
	초등학교	43	27.2
	중학교	32	20.3
	고등학교	35	22.2
	전공과	20	12.7
	졸업	20	12.7
자녀의 장애 등급	1급	140	88.6
	2급	9	5.7
	3급	9	5.7
현 거주 지역	특별시, 광역시	89	56.3
	중·소도시	60	38.0
	읍·면지역	9	5.7
거주 형태	독립가정	31	19.6
	가족과 함께 거주	95	60.1
	학교 기숙사	14	8.9
	공동생활가정	3	1.9
	장애인생활시설	12	7.6
	기타	3	1.9
계		158	100.0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사와 시각중복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8편(정인숙 외, 2005; 김정재 외, 2009; 김운태 외, 2009; 박승철 외, 2010; 윤점룡 외, 2010; 강순원 외, 2011; 송소현 외, 2011; 김기룡 외, 2014)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 협의를 거쳐 재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내용	문항수
1. 평생교육 실태	1-1. 평생교육 경험 유무	4
	1-2.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3. 평생교육을 받은 기관	
	1-4. 받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 실행에 대한 요구	2-1. 평생교육 참여 의사	3
	2-2.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저해 요인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3-1.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 기간	7
	3-2.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당 운영 횟수	
	3-3.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루 운영 시간	
	3-4.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3-5.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3-6.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영역	
	3-7.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영역	
4. 평생교육 활성화 요구	4-1.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	3
	4-2.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4-3.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1차로 구성한 설문지는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교수 3인, 현장 교사 5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설문지 구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부모용의 경우에는

부모 6인, 교사용의 경우에는 교사 4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 이해도와 답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수정 후 보완하였다.

교사용 및 부모용 설문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평생교육 실행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 활성화 요구」로 분류하여 구성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는 고등학교 졸업생 부모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특성에 따라 주로 유효 응답률과 백분율로 처리하였으며, 복수 응답하는 문항의 경우 다중응답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교사와 부모)별 평생교육 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중복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는 졸업생 부모를 대상으로 졸업 후 평생교육 경험 여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중복장애 성인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5.8%로 있다는 응답 24.2%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1; 김성희 외, 2011)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김정재 외, 2009; 김기룡 외, 2014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 시각중복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 분	N	%
있다	8	24.2
없다	25	75.8
계	33	100.0

2)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의 <표 5>와 같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20.0%),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 분	N	%
평생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10	40.0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3	12.0
교육비가 부담되어서	2	8.0
필요성을 못 느껴서	5	20.0
이동하기 어려워서	1	4.0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2	8.0
기타	2	8.0
계	25	100.0

곽승철 외(2010)의 연구나 강순원 외(2011), 그리고 김기룡 외(2014)의 연구에서도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했고, 김정재 외(2009)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윤점룡 외(2010)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평생교육을 받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각중복장애 성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이용한 평생교육 기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50.0%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37.5%, 특수학교가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고등학교 졸업 후 이용한 평생교육 기관

구 분	N	%
장애인단체	0	0
장애인복지관	4	50.0
장애인야학	0	0
장애인직업재활기관	0	0
특수학교	1	12.5
일반인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기관	0	0
대학부설평생교육원	0	0
기타	3	37.5
계	8	100.0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 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일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2.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행에 대한 요구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행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평생교육기관에서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이 교사의 92.4%, 부모의 97.5%가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참여 의사가 교사의 참여 의사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평생교육 기관에서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해준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의견과 ‘신변자립을 위한 지원이 따른다면 원한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 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구분	원한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기타	계	χ^2	p
교사	145(92.4)	9(5.7)	3(1.9)	157(100.0)	4.268	.118
부모	154(97.5)	3(1.9)	1(0.6)	158(100.0)		
계	299(94.9)	12(3.8)	4(1.3)	315(100.0)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다음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립생활을 위해서가 전체의 3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취미나 여가 생활을 위해(23.1%),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16.9%),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위해(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독립생활을 위해	145	35.6	140	33.4	285	34.5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	63	15.5	77	18.4	140	16.9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위해	64	15.7	70	16.7	134	16.2
취미나 여가 생활을 위해	101	24.8	89	21.2	190	23.1
배우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26	6.4	36	8.6	62	7.5
기타	8	2.0	7	1.7	15	1.8
계	407	100.0	419	100.0	826	100.0

이에 대해 교사와 부모의 의견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는 교사에 비해 지식과 정보습득,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던 반면, 교사는 부모에 비해 취미나 여가 생활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족한 일상생활 기술 습득이나 사회성 기술 습득, 혹은 지역사회 참여, 재활치

2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료,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저해 요인

시각중복장애 성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저해 요인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필요성을 못 느껴서	55	13.0	20	5.3	75	9.4
교육 장소까지 이동이 어려워서	116	27.5	95	25.2	211	26.4
교육비가 부담되어서	91	21.6	88	23.3	179	22.4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42	9.9	51	13.5	93	11.6
기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26	6.2	42	11.1	68	8.5
장애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78	18.5	68	18.0	146	18.3
기타	14	3.3	13	3.4	27	3.4
계	422	100.0	377	100.0	799	100.0

표를 살펴보면, 시각중복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 문제가 전체의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부담이 22.4%, 장애문제의 심각성 요인이 18.3%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의 부족(11.6%), 필요성 인식의 부족(9.4%), 기관에 대한 믿음 부족(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부모의 의견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답변이 교사(13.0%)가 부모(5.3%)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라는 답변은 부모가 교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진행 시 자원봉사자 배치의 문제, 원하는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자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3.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 기간, 프로그램의 주당 횟수,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 시간, 희망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희망하는 전문가 구성,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영역 및 중영역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 기간

다음의 <표 10>과 같이 교사와 부모가 선호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 기간을 분석한 결과, 교사와 부모의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경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이 29.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27.4%, 3개월 미만이 7.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0.4%로 가장 높았고, 기타 의견이 전체의 25.9%를 차지하여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10>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 기간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6~1년	1년 이상	기타	계	x^2	p
교사	12 (7.6)	43 (27.4)	55 (35.0)	46 (29.3)	1 (0.6)	157 (100.0)	49.605	.000
부모	10 (6.3)	48 (30.4)	33 (20.9)	26 (16.5)	41 (25.9)	158 (100.0)		
계	22 (7.0)	91 (28.9)	88 (27.9)	72 (22.9)	42 (13.3)	315 (100.0)		

부모의 기타 의견은 ‘평생 동안’, ‘성과가 보일 때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단기간의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의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주당 운영 회수

교사와 부모가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횟수는 다음의 <표 11>과 같이, 3회가 4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회가 27.0%, 2회가 24.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부모의 의견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2회가 23.6%로 5회(22.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경우 5회가 31.6%로 2회(24.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운영 횟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χ^2	p
교사	3 (1.9)	37 (23.6)	74 (47.1)	8 (5.1)	35 (22.3)	157 (100.0)	5.965	.201
부모	3 (1.9)	39 (24.7)	55 (34.8)	11 (7.0)	50 (31.6)	158 (100.0)		
계	6 (1.9)	76 (24.1)	129 (41.0)	19 (6.0)	85 (27.0)	315 (100.0)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 시간

교사와 부모가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 시간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계	χ^2	p
교사	2 (1.3)	31 (19.7)	58 (36.9)	43 (27.4)	23 (14.6)	157 (100.0)	25.108	.000
부모	10 (6.3)	48 (30.4)	33 (20.9)	26 (16.5)	41 (25.9)	158 (100.0)		
계	12 (3.8)	79 (25.1)	91 (28.9)	69 (21.9)	64 (20.3)	315 (100.0)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 시간은 교사와 부모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경우 3시간이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시간이 27.4%, 2시간이 19.7%, 5시간 이상이 14.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의 경우에는 2시간이 30.4%로 가장 높았고, 5시간 이상이 25.9%, 3시간이 20.9%, 4시간이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3시간이 28.9%, 2시간이 25.1%, 4시간이 21.9%, 5시간 이상이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기관으로 교사와 부모가 선호

하는 기관은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이 전체의 24.6%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관(23.8%), 특수학교(22.0%)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일반인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기관(10.6%), 대학부설 평생교육원(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교사와 부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사는 직업재활기관(27.4%)과 장애인복지관(25.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는 특수학교(25.1%)와 장애인복지관(22.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3>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장애인단체	31	7.5	28	7.1	59	7.3
장애인복지관	104	25.2	88	22.3	192	23.8
장애인야학	4	1.0	5	1.3	9	1.1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113	27.4	86	21.8	199	24.6
특수학교	79	19.1	99	25.1	178	22.0
일반인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기관	44	10.7	42	10.6	86	10.6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38	9.2	43	10.9	81	10.0
기타	0	0	4	1.0	4	0.5
계	413	100.0	395	100.0	808	100.0

5)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교사와 부모가 선호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계 전문가는 다음의 <표 14>와 같이, 직업재활사(21.0%)와 특수교사(20.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16.1%), 장애인 평생교육사(15.8%), 특수교육 전공 교수(14.7%), 심리전문가(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교사와 부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사는 직업재활사(24.5%)와 특수교사(20.1%),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19.3%)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부모는 장애인 평생교육사(21.6%)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20.5%), 직업재활사(17.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14>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가 구성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사회복지사	74	16.2	72	16.0	146	16.1
장애인 평생교육사	46	10.1	97	21.6	143	15.8
심리전문가	40	8.8	63	14.0	103	11.4
직업재활사	112	24.5	78	17.4	190	21.0
특수교사	92	20.1	92	20.5	184	20.3
특수교육 전공 교수	88	19.3	45	10.0	133	14.7
기타	5	1.1	2	0.4	7	0.8
계	457	100.0	449	100.0	906	100.0

6)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영역

교사와 부모가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대영역(김두영, 박원희, 2013)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6개 대영역별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기초문해교육	109	18.8	107	17.9	216	18.3
학력보완교육	73	12.6	84	14.0	157	13.3
직업능력향상교육	129	22.2	108	18.0	237	20.1
문화예술교육	105	18.1	111	18.5	216	18.3
인문교양교육	87	15.0	104	17.4	191	16.2
시민참여교육	77	13.3	85	14.2	162	13.7
계	580	100.0	599	100.0	1,179	10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들이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대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능력향상교육이 2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초문해교육(18.8%), 문화예술교육(18.1%), 인문교양교육(15.0%), 학력보완교육(12.6%), 시민참여교육(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모가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 1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18.0%), 기초문해교육(17.9%), 인문교양교육(17.4%), 시민참여교육(14.2%), 학력보완교육(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와 부모 모두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중복장애인의 특성인 개별성 및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두 학생이 시각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똑같이 분류가 되더라도 정확히 같은 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홍재영, 한성희, 2007)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특별히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7)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영역

교사와 부모가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8개 중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먼저 교사가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8개의 중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전체의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 11.4%,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11.2%, 사회재활 프로그램 9.4%,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7.4%, 시민의식 프로그램 6.7%, 시민활동 프로그램 5.6%,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5.5%, 생활소양 프로그램 5.3%, 한글문해 프로그램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각중복장애 담당교사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과 사회재활 프로그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시각중복장애인의 성인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직업생활과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자신이 희망하는 생활목표나 생활양식을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타인의 힘을 빌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생활의 내실을 기하고, 자기의 삶을 자신이 결정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할 수 없거나 잘 하지 못하는 일에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며, 개호자의 도움을 얻고, 그 결과로서 인간관계를 풍부히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자립이며, 공생이라는 말과 별개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진아, 2013).

〈표 16〉 18개 중영역별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기초문해교육	한글문해	26	4.1	22	3.4	48	3.7
	한글생활문해	21	3.3	17	2.6	38	2.9
	기초자립생활	73	11.4	69	10.6	142	11.0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50	7.8	45	6.9	95	7.3
	중등학력보완	23	3.6	20	3.1	43	3.3
	고등학력보완	4	.6	31	4.8	35	2.7
직업능력향상교육	기초직업교육	98	15.3	53	8.1	151	11.7
	전문직업교육	25	3.9	35	5.4	60	4.6
	자격인증	21	3.3	17	2.6	38	2.9
문화예술교육	여가스포츠	72	11.2	70	10.7	142	11.0
	문화예술향유	35	5.5	36	5.5	71	5.5
	문화예술숙련	8	1.2	22	3.4	30	2.3
인문교양교육	사회재활	60	9.4	61	9.4	121	9.4
	생활소양	34	5.3	36	5.5	70	5.4
	인문학적 교양	2	.3	23	3.5	25	1.9
시민참여교육	시민의식	43	6.7	46	7.1	89	6.9
	시민역량	10	1.6	16	2.5	26	2.0
	시민활동	36	5.6	33	5.1	69	5.3
계		641	100.0	652	100.0	1293	100.0

한편 부모들이 희망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영역별로 살펴 보면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이 전체의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10.6%), 사회재활 프로그램(9.4%),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8.1%), 시민의식 프로그램(7.1%),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6.9%),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5.5%), 생활소양 프로그램(5.5%),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5.4%), 시민활동 프로그램(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반면, 부모들은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는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과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

교사와 부모들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시각중복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프로그램의 내용	126	27.3	113	25.3	239	26.3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100	21.6	90	20.2	190	20.9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	20	4.3	34	7.6	54	5.9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75	16.2	64	14.3	139	15.3
프로그램 교육비	46	10.0	53	11.9	99	10.9
평생교육기관 편의시설	66	14.3	60	13.5	126	13.9
평생교육기관까지의 거리	26	5.6	30	6.7	56	6.2
기타	3	0.6	2	0.4	5	0.6
계	462	100.0	446	100.0	908	100.0

교사와 부모들이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26.3%)과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2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실시 기간(15.3%), 평생교육기관의 편의시설(13.9%), 프로그램 교육비(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교사와 부모의 의견에 큰 차이는 없었다.

2)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요구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의 부모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복응답)

구분	교사		부모		계	
	N	%	N	%	N	%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76	16.6	62	14.1	138	15.4
예산 마련	82	17.9	92	20.9	174	19.4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홍보	39	8.5	38	8.6	77	8.6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보급	115	25.2	111	25.2	226	25.2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101	22.1	87	19.8	188	21.0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2	4.8	19	4.3	41	4.6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20	4.4	29	6.6	49	5.5
기타	2	0.4	2	0.5	4	0.4
계	457	100.0	440	100.0	897	100.0

표를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들은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보급(25.2%)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21.0%)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 마련(19.4%),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15.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홍보(8.6%),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5.5%),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6%) 등을 향후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하여 교사와 부모의 큰 이견은 없었으나 교사의 경우 부모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으며, 부모의 경우 교사에 비해 예산 마련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이 연구는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사와 시각중복장애 학생 및 졸업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이 연구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실태를 평생교육 경험 여부, 평생교육 비참여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시각중복장애 성인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5.8%로 있다는 응답(24.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40.0%)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20.0%), 그리고 평생교육 제공 기관의 부족(12.0%)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평생교육 기관은 주로 장애인복지관(50.0%)과 특수학교(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한 국가적인 차원의 실태조사(국립 특수교육원, 2011; 김성희 외, 2011)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김정재 외, 2009; 김운대 외, 2009; 곽승철 외, 2010; 강순원 외, 2011; 김기룡 외, 2014)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및 기관의 부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시각중복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저장 및 유통의 기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산재된 평생교육 정보를 공유·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든, 한번(One Click)에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교육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2013).

아래의 <그림 1>은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지역 평생교육 정보 및 관련 기관의 종합네트워크화 및 중앙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구축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의 강좌정보란이다(<http://daejeon.damoa.dile.or.kr/main.do>). 이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망을 구축하여 장애성인 학습자들이 장애유형별, 정도별, 연령별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학습내용, 시설, 지도자, 교재, 각종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전체	35351	자격증, 취업	2778	예술, 스포츠	17395	외국어, 교양	11814	기타	3364
----	-------	---------	------	---------	-------	---------	-------	----	------

번호	구분	강좌명	수강료	강좌기간	접수기간	지역	기관명	상태
11814	생활의료 교육	대학병원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15	무료	2014.06.23 ~ 2014.06.23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13	일반문화 강좌	직장인을 위한 학습파티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해...>	5,000원	2014.06.20 ~ 2014.06.20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12	식생활교육	<커피 클래스2> 궁금한 커피의 맛과 향...	5,000원	2014.06.19 ~ 2014.06.19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11	일반문화 강좌	지식공동체 북포럼@대전 11차	무료	2014.06.18 ~ 2014.06.18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10	철학/행복 한강좌	수납의 달인, <다이어트가 필요한 우리집 냉장고...>	5,000원	2014.06.17 ~ 2014.06.17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09	건강심성	나를 찾는 심리학 특강6- 내안에 있는 4살짜리 내...	5,000원	2014.06.16 ~ 2014.06.16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08	생활의료 교육	대학병원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14-홍통과 고혈압	무료	2014.06.16 ~ 2014.06.16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07	식생활교육	<한국전통음식 시리즈3> 미만두	5,000원	2014.06.15 ~ 2014.06.15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06	일반문화 강좌	직장인을 위한 학습파티 <유쾌한 소통화법>...	5,000원	2014.06.13 ~ 2014.06.13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11805	식생활교육	<커피 클래스1> 궁금한 커피의 맛과 향...	5,000원	2014.06.12 ~ 2014.06.12	2014.02.10 ~ 2014.03.01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대기중

◀ ◻ ◻ 1 2 3 4 5 6 7 8 9 10 ▶ ▶

<그림 1> 대전광역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방 강좌정보

2)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실행에 대한 요구

이 연구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요구를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향후 평생교육기관에서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교사(91.8%)와 부모(97.5%)의 대부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생활을 위해서 또는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 문제(26.4%), 교육비 부담(22.4%), 장애문제의 심각성(18.3%) 등으로 나타났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나 학교에서 쌓은 업적과 졸업장만으로 평생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응하고, 21세기 정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교육과 자기개혁에 힘써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영호, 2004). 시각중복장애인 역시 독립된 생활의 영위, 취미나 여가 생활 향유,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 평생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각중복장애인은 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업기술, 문제행동 대처기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각중복장애인이 학교 졸업 이후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를 획득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진로를 계발하고,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기 삶에서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각중복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담당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중앙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수준의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교사와 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1강좌의 운영 기간은 3개월~6개월 미만(28.9%), 6개월~1년 미만(27.9%), 1년 이상(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의 주당 횟수는 3회(41.0%), 5회(27.0%), 2회(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운영 시간은 3시간(36.9%), 4시간(27.4%), 2시간(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하는 평생교육 기관으로는 직업재활기관(24.6%), 장애인복지관(23.8%), 특수학교(22.0%)의 순으로 나타났고,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계 전문가는 직업재활사(21.0%), 특수교사(20.3%), 사회복지사(16.1%), 장애인 평생교육사(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직업능력향상교육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교육, 기초 문해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등 모든 영역이 비교적 골고루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만 한정하면, 이들의 평생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교사와 부모가 선

호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해봤으나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렇듯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제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사와 부모는 직업능력향상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물론, 기초문해교육이나 인문교양교육, 그리고 시민참여교육도 요구하고 있다.

장애성인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두영, 박원희, 2013). 또한 수요자의 요구보다 시설의 편의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다른 시설이 이미 제공에 성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내용이 단편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성인에게 단순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201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13~'17)」에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6개 영역 즉, 학력보완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별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복지대학이 주축이 되어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시각중복장애인 중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각중복장애인의 교육적 욕구는 수반하고 있는 장애와 시각장애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독특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Lewis & Russo, 1998)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평생교육은 그 어떤 특성을 지닌 학습자이든 그 학습수준과 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서는 시각중복장애인의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종류 및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는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과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시각중복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의 내용(26.3%)과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2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보급(25.2%)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21.0%)를 꼽았다.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직접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 인력이 그들의 교육을 전달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각 대학 특수교육학과의 대학원 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석·박사들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일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이 1990년대 들어서 급부상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평생교육학자들의 인력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교육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전국에 30개 대학을 훌쩍 넘고 있는 반면, 대학원 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단국대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김두영, 박원희, 김호연, 201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수급 방안 연구」(정인숙 외, 2013)와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박재국 외, 2013)가 진행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역할과 수급 방안, 그리고 전문 인력 수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정인숙 외(2013)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란 장애성인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장애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지도 능력을 갖춘 자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습정보 제공 및 상담 능력,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역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능력, 행·재정 관련 실무 능력을 갖춘 자로 특수교사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 관련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과정을 이수하도

록 하여 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배치 방안으로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에 우선 배치하되, 점차 모든 평생교육 기관에 1인 이상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배치 기관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 관련 기관과 기타 장애성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박재국 외(2013)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명시하고,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동법 시행령에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장애성인 교육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전문가의 지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정동영, 2004).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지금까지 전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사와 시각중복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를 통해 얻어진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중복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장애당사자들이 평생교육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비, 보관하는 DB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시각중복장애인은 물론 모든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담당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능을 담당할 중앙센터의 부재로 인해 체계적으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앙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주축으로 종합적인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각중복장애인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영역 중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에 속한 시각중복장애인에게는 이들에게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의 확대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관련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각중복장애인 교사와 부모 모두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보급과 함께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장애는 원래 그 종류와 수준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효과와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장애가 중중이고 이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더해져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 인력이 그들의 교육을 전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성인 교육은 마치 누구나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인양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성인 교육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전문가의 지원과 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정동영, 2004).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함에 있어 성인보다는 학령기 학생들의 부모 및 교사들을 위주로 조사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각중복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원, 김윤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2011).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곽승철, 임경원, 노진아, 이유리(201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2008). **2008 평생교육백서 [제11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제14·15호 합본]**. 서울: 저자.
- 국립특수교육원(2011). **2011 특수교육실태조사**. 저자, 아산.
- 김기룡, 김치훈, 윤진철, 이해영(2014). **장애성인을 위한 대학중심 평생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두영, 김호연, 박원희(2014).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8(4), 364-387.
- 김두영, 박원희(2013).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1-25.
- 김두영, 박원희, 김호연(2013). 일반교육학 분야와 특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7(4), 255-278.
-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승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태, 김성애, 박찬웅, 김윤덕, 김은주, 박은영, 김정숙, 김병철(2009).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최복천, 김기룡(200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김주영, 김두영, 정희섭, 한경근, 홍석의(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김창환, 홍지영, 최상덕, 김미숙(2007). **2007 평생학습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국, 김혜리, 민영성, 이충렬(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변용찬, 서동우, 이선우, 김성희, 황주희, 권선진, 계훈방(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모형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신미식(2010). 한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5(4), 371-393.
- 양흥권(2008).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 2008년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371-391.
- 윤점룡, 양종국, 원성욱, 강병호, 정인숙(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영호(2004). 일본의 평생교육체계 정비와 생애학습시책에 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 14(2), 119-141.
- 이진아(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재활복지*, 17(1), 17-44.
- 정동영(2004).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 장애인교육원 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pp. 43-68).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인숙, 김석진, 박재국, 박진홍, 이해영, 홍성두(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수급 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홍재영, 한성희(2007). 시각장애아동의 효율적인 운동 수행을 위한 생태학적 평가모형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9(3), 149-169.
- Chapman, J., & D. Aspin(1997). *The School, The Community and Lifelong Learning*. London: CASSEL.
- Green, A.(2002). The many faces of lifelong learning: recent education policy trends in Europe.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7(6), 611-626.
- Lewis, S., & Russo, R. (1998). Educational assessment for students who have visual impairments with other disabilities, In S. Z. Sacks, & R. K. Silberman(Eds). *Educating student who have visual impairments with other disabilities*(pp.39-57), MD: Brookes Publishing Co.

The Status and Need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among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Kim, Doo-Young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Kim, Ho-Yeon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Hong, Jae-Young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their needs on life-long education among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The actu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deas to develop the basic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For this study, a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with 157 teachers at schools for the blind as well as 158 parents of students and graduates with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First, only 24% of students have some kind of experience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which have provided at schools and a couple of social welfare centers. However, almost all parents would want their children to participate any kin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Second, the highest program of their interests was the vocationally related program. Third, they mostly prefer the duration of programs: 3-6months, the weekly number of times: 3, and the hours of programs: 3. Last, participants realize that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are to develop proper programs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to spread out those programs as well as to activate the teacher training program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ose results, the suggestions were presented finally.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Need Analysis,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14. 09. 30 심사 시작: 2014. 11. 10 게재 확정: 2014. 12. 01